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3:1-12)

부활절 연합예배 OC기독교단체

오렌지카운티의 5개 기독교 단체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한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심상은), OC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 회장 배기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OC목사회(회장 이원석), OC여성목사회(회장 김선옥)는 오는 31일(일) 오전 5시30분 브레아의 나침반교회(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연합예배 강사는 라팔마의 씨드교회 권혁빈 담임목사가 맡는다. 이외 민경엽 목사, 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조봉남 OC한인회장이 환영사를 준비한다.

찬양은 은혜한인교회 연합찬양대와 레위성가대가 맡는다.

문의: (714) 722-4805

새 원장에 덕일 스님 법보선원

가든그로브에 있는 '법보선원' (12732 Gilbert St., Garden Grove, CA 92841)의 새 원장으로 덕일 스님이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는 4월 6일(토) 이 선원에서 열린다.

지난 96년 출가한 덕일 스님(56)은 스리랑카 페라테니아 대학에서 불교 고전어 수학, 미 버지니아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를 마쳤으며 오는 6월 UCLA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다.

대학 시절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불교에 심취한 덕일 스님은 학위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폭넓게 불교학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특히 "한인 2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영어로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적 발행이나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714) 583-8737

기독교인이려면 누구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해방 영웅 모세를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림을 받지만,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다가 왕이 되기 직전에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나가 양치기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접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신발을 벗으라!" 고대에서 신발이란 더러운 것, 옛 것, 옛 관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옛 모습을 벗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네 옛 모습을 벗어야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누가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발의 신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품없는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목동으로 있을 때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이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디가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옛



모습을 벗기 위해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떻게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저 한순간의 신기한 일로 흘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인식했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 가족, 교회, 사회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을 갖고 감탄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저 옛 모습을 벗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의미를 동반합니다.

3. 왜 신발을 벗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대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인간은 가장 고상한 인격자가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때에 가장 고상한 인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 사람, 나의 허물진 모든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인격,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운 목사 -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래피 갤러리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